

'7골 3도움' 연지현 날았다...광주도시공사, 3연패 탈출

핸드볼 H리그 2라운드 인천시청에 26-21 승...22일 대구시청과 경기 초반 빠른 공격 전개로 주도권 잡아...송혜수·김서진 활약에 리드 유지

광주도시공사가 인천시청을 꺾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6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시청을 26-21로 누르고 시즌 3승째를 기록했다.

이번 승리로 광주도시공사는 1라운드 인천시청 전 패배를 설욕하는 동시에 최근 3연패에서 벗어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경기 초반 빠른 공격 전개로 주도권을 잡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2분 김수민과 김서진의 연속 득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전반 4분 김서진이 한 골을 추가했고, 전반 6분에는 김수민이 송혜수의 패스를 받아 골을 성공시키며 4-0으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인천시청 강은서가 첫 득점을 올렸지만, 전반 7분 연지현이 김지현의 도움으로 득점하면서 5-1로 리드를 유지했다.

인천시청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인천시청은 이효진과 김주현의 득점에 이어 구현지의 7m드로우가 성공하면서 5-4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았다.

전반 12분 광주도시공사 송혜수가 빠른 스탠딩 슈팅으로 골을 넣으며 6-4가 됐다.

이어서 골키퍼 이민지가 인천시청 이효진의 슈팅을 막아냈고, 김서진이 전반 15분 원에서 날린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지며 7-4로 점수차가 벌어졌다.

이후 양 팀 모두 득점 정체에 빠지며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다.

정체를 깨뜨린 것은 광주도시공사 연지현이었다. 연지현은 전반 21분 송혜수의 노푼 패스를 받아 득점하며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종료 직전 나온 송혜수의 속공으로 10-7로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연지현이 득점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김서진과 김수민이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광주도시공사는 13-8로 앞서나갔다.

인천시청도 박민정과 차서연이 연속 득점하며 따라붙었지만,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이 후반 6분 7m 드로우를 성공시켰고, 후반 11분 연지현이 득점하며 17-10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나 인천시청은 김주현, 구현지, 박서희 등을 앞세워 광주도시공사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18분 엠프티골을 허용하며 분위기가 흔들렸고, 후반 21분에는 21-20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위의 상황에서 광주도시공사의 집중력이 발휘됐다.

후반 24분 연지현이 결정적인 순간 득점하며 23-21로 달아났고, 곧이어 인천시청 박서희의 파울로 7m 드로우를 얻은 광주도시공사는 김지현의 골로 24-21을 만들었다.

광주도시공사는 경기 종료 직전 송혜수와 정현희가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26-21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날 연지현은 7골 3도움으로 팀 승리를 이끌며 경기 MVP에 올랐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연지현은 "계속 지는 경기였었는데 오늘 이기는 경기를 해서 다음 경기까지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미들 속공에서 득점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수비에서는 (스스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감독님과 언니들의 도움 덕분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3승 1무 7패, 승점 7점으로 6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승리로 반등의 기회를 잡은 광주는 오는 22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대구시청을 상대로 분위기 잇기에 나선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연지현(오른쪽)이 16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H리그 여자부 인천시청과의 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광주·전남 장애인 선수들, 뜨거운 열정·노력 빛났다

전국장애인체전 성료...전남 최재형 크로스컨트리스키서 대회 2관왕

전국 장애인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빛났던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지난 14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폐회식을 통해 막을 내렸다.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강릉 컬링센터를 비롯해 강원 일원 7개 경기장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알파인스키·스노보드·크로스컨트리스키·바이애슬론·아이스하키·컬링·빙상(쇼트트랙) 총 7개 종목에 17개 시도 1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컬링·빙상 2개 종목에 28명(선수 13명, 임원·지도자 15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광주는 종합점수 221점, 최종 17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남자 빙상 윤좌현(IDD)이 500m와 1000m 결승에서 각각 5위에 머물렀고, 이번 대회 8강 진출을 목표로 도전한 남녀 컬링 4인조와 휠체어컬링 2인조·4인조 팀이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이번 체전을 무관으로 마무리 한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해 선정한 ' 으뜸 선수단상'을 수상하며 앞으로의 기량 향상과 선전을 다짐했다.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광주가 장애인동계스포츠의 불모지로 남지 않도록 동계 종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선수단은 이번 체전에서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2관왕 최재형(농어촌공사) 등을 앞세워 최종 9위에 오르는 등 선전했다.

6개 종목(알파인스키·크로스컨트리스키·바이애슬론·아이스하키·컬링·빙상)에 77명(선수 36명·임원·지도자 41명)의 선수단이 나선 전남은 총 8개 메달(금 2·은 3·동 3)로 종합점수 8396점을 기록했다.

최재형(IDD)은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6km Free에서 15분 23초50으로 금메달을 획득, 이 종목 4연패를 기록했고 4km Classic에서도 금메달



지난 14일 폐막한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크로스컨트리스키 6km Free 종목 4연패를 달성한 전남 최재형(한국농어촌공사·IDD)이 스타트라인을 나서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12분 46초60)을 때내며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여자 크로스컨트리스키에 출전한 박영순(덕수학교·IDD)도 4km Classic과 6km Free에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빙상에서는 유승협(호반건설·IDD)이 남자 500m와 1000m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박정철(한전KPS·DB)이 남자 500m와 1000m에서 각각 3위를 기록하며 메달을 추가했다.

남녀 컬링(정각)팀은 이번 대회 최조로 나란히

8강에 진출해 기대를 모았으나 남자부는 총복에 1-11패, 여자부는 총남에 7-12패를 당하며 4강 도전이 좌절됐다. 남자 아이스하키팀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 혼성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최종 5위로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서정진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하반기 강화훈련을 통해 내년 23회 대회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서울 vs 전북'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

28일 대의원총회서 결정

서울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쟁하는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결정이 2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체육회는 17일 이사회에 이어 28일 대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국내 유치 도시를 결정한다.

17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선 유치 희망 도시에 대한 국제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의결한 뒤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게 된다.

앞서 체육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려는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지인 서울과 전북도는 나름의 강점을 내세워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스포츠시설은 물론 교통·숙박 등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종합 경쟁력 6위의 국제적인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부산시를 따돌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도시로 선정됐던 서울시는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시는 기존 시설을 100%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인천국제공항 및 경기장 간 이동 거리가 1시간 이내여서 IOC 요구 조건에 들어맞는다는 강점을 내세운다.

이에 맞서는 전북도는 최근 올림픽 유치 도시들의 콘셉트인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도는 올림픽을 유치하면 육상 경기를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하고, 광주(국제양궁장·남부대사립국제수영장), 충남 홍성(충남 국제테니스장), 충북 청주(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전남 고흥(남해해돋이해수욕장) 등에서 분산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IOC가 지향하는 인접 도시 연대를 통한 비용 절감 요구에 부합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경제력의 분산으로 균형 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한국 축구의 '전설'인 이회택 한국OB축구회장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여자복식 금메달리스트인 '탁구 여왕'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 지역 출신의 왕년의 스포츠 스타 박성현(양궁)과 김동문(배드민턴), 유인탁(레슬링) 등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28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대의원총회의 때 비밀 투표로 유치 후보 도시를 선정한다.

/연합뉴스

'모친상' 우즈, 19일 TGL 스크린 골프 출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모친상 이후 첫 대회에 출전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즈가 다음 주 TGL 경기에 나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즈가 출전 예정인 TGL 경기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소파이 센터에서 열린다.

TGL은 우즈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주도해 만든 스크린 골프 리그로 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우즈는 김주형, 케빈 키스너, 맥스 호마(이상 미국)와 함께 주피터 링크스 골프 클럽팀에 속해 있다.

우즈는 1월 말 TGL 경기에 출전했고, 이후 12일 개막하는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모친상으로 불참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탄소중립, 이끼로 말하다! : 원예복지협동조합**

일시 : 2025-2-21(금)-2025-3-23(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